**Roger Green 박사, 미국 기독교,   
세션 2 7, 복음주의**©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미국의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에 대한 27번째 세션입니다.   
  
교회 역사상 이 날짜는 4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도를 대신할 것입니다. 이것은 성 오거스틴의 개종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상 위대한 날짜입니다.

그는 다소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의 삶에서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개종했고, 4월 25일에 그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글의 모든 영향으로 인해 기독교회의 역사는 꽤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날짜입니다. 여기서 제 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강의 계획서 1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주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주의를 보았고, 영상에서 그것에 대한 감각을 얻었습니다.

그럼 이제 복음주의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오, 알겠어요. 아니, 한 가지 더 해야 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과과정에서 A4입니다. 결과가 3개라고 했는데, 결과는 1개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결과는 우리가 한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해. 아니, 여기 없어. 알았어.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잊을 것입니다. 비판은요.

아니요. 미안합니다. 좋아요, 그것도 잊어버리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한 비판은요.

이제, 두 번째 결과는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A4 결과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복음주의라는 분리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의의 다음 부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 우리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근본주의의 결과였습니다.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주의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근본주의자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고, 비판적인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결과는 근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 번째 결과, 근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적 반응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주의에 대한 그런 종류의 더 자유로운 반응에 대해, 우리는 그것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일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워포인트가 필요해서 다시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해리 에머슨 포스딕입니다.

이건 당신이 알아야 할 이름이에요. 해리 에머슨 포스딕. 포스딕.

좋아. 해리 에머슨 포스딕. 이제, 나중에 할 일은, 그의 날짜를 알아내서 어딘가에 그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당시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라디오에서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해리 에머슨 포스딕의 설교를 읽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뉴욕의 Riverside Church에 갔는데, 이곳은 뉴욕시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교회입니다. 뉴욕에 가신다면 Riverside Church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침례교 출신의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침례교회 같지는 않아요. 정말 성당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 Riverside Church에 가본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글쎄요, 결국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리버사이드 교회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친절한 지위에서, 그의 설교자 위치에서, 그의 설교자 위치에서, 그는 미국의 설교단 역사에서 지금은 유명한 매우 유명한 설교로 미국의 근본주의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 제목은 근본주의자들이 이길까? 근본주의자들이 이길까? 그리고 그것이 근본주의에 대한 그의 도전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그의 답은 '아니오'였고, 그가 설교에서 밝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은 고전적 정교회 기독교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근본주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결과는 근본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반발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 에머슨 포스딕과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설교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근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은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복음주의를 형성하고 형성한 다섯 가지 운동과 오늘날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운동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약간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제가 몇 년 전 American Academy of Religion에서 들었던 강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론 노트북이나 다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빨리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훌륭한 강의였고, 복음주의의 뿌리에 대한 훌륭한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보다 더 간결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를 형성한 다섯 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왜 내가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참아내자. 이제 이걸 없애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가 고전적 운동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 고전적 운동에 따르면, 그가 의미한 것은 종교 개혁 전통, 특히 존 칼빈의 개혁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확실히 종교 개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종교 개혁에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복음주의의 많은 부분은 그 개혁주의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고전적 배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는 경건주의입니다. 그리고 상기시켜드리자면, 경건주의는 17세기의 쇄신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건주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루터교에 쇄신을 가져온 일종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경건주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경건주의에 대해, 저는 오늘날 우리가 종종 그 단어를 잘못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좋은 의미에서 경건주의, 그 운동은 정신과 마음의 결혼이었습니다. 경건주의는 순전히 지적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지 않고,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감정을 만지지 않는 루터교를 찾았습니다.

경건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온전한 사람을 위해 마음과 정신, 그리고 복음 전체를 결합한 아름다운 운동이었습니다 . 글쎄요, 복음주의에서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물론 웨슬리안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리안 운동은 오늘날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 웨슬리와 웨슬리안 부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그것과 웨슬리안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네 번째는 근본주의 그 자체입니다. 근본주의는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힐드브란트 박사와 제가 언급한 것 중 하나는 이러한 근본주의 운동 중 다수에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 성경에서 설교, 성경에서 가르침, 성경 본문 암기 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그들이 자란 근본주의의 일부, 성경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근본주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언급한 것은 그가 진보적이라는 라벨을 붙인 것입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에 대한 의식적 감각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그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현대 세계에 대한 의식적 감각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우선, 진보주의자는 근본주의를 개혁하고 근본주의를 재형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본주의 안에 머무를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근본주의 안에 머물러서 개혁하는 게 어떨까요.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그룹은 바로 이 그룹입니다. 그가 언급한 두 번째 그룹은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 주류 교파의 보수적 기독교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라는 라벨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진보주의자, 5번째입니다. 오, 제가 들은 연설자는 이 신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문의 연설자는 점진적으로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를 내부에서 재편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주류 교회에는 보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근본주의자라고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근본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한 높은 견해를 가진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비판을 좋아하지 않았고, 미쳐버렸고, 등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매우 에큐메니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교파가 유일한 교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보수적인 기독교인과 다른 개신교 교파 등을 찾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에큐메니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글쎄요, 그게 그가 진보적이라는 라벨 아래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그룹 모두 현대 세계에 대한 매우 의식적인 감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의제의 일부는 교회가 근대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교회가 현대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교회가 우리가 처한 세상에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그가 그 다섯 가지 배경을 마쳤을 때, 그가 한 다음 일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고, 여전히 여기 배경의 일부로 하고 있는 일인데, 그는 이 다섯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글쎄요, 그들은 확실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일련의 신학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역사적 신학과 역사적 정통성에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섯 그룹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는 신학적 신념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그리스도론, 성령의 역사, 성경의 중요성, 그런 것들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공통적으로 에토스, 갱신의 정신, 그가 세상에서 개인 교회의 갱신과 개종의 정신이라고 부른 것, 영적 갱신의 운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토스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 성령이 교회에 갱신을 가져오고, 개인에게 갱신을 가져오고, 교회에 갱신을 가져오고, 심지어 세상에 갱신을 가져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토스는, 교리적으로 항상 정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그 에토스는 확실히 이 모든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배경 측면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제가 말했듯이, 저는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듣지 못했고,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읽지 못했고, 그보다 더 간결한 것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그럼 배경.

여기서 배경을 명확히 알 수 있나요? 네. 첫 번째는 진보주의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로 돌아가서, 진보주의자는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가 언급한 첫 번째 그룹은 근본주의에 머물러서 내부에서 개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를 내부에서 재편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주의자로 남으면서도 개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실제로 떠나서 복음주의에 합류했지만, 그것이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도움이 되나요? 두 번째 그룹은 자신을 근본주의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교파의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었고 매우 에큐메니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교파의 다른 개신교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싶어했습니다.

배경에 대한 다른 얘기, 알겠어요? 다음으로는 교회, 특히 복음주의가 직면한 20세기 문화적 세력에 대해 논의해 볼게요. 복음주의자들이 직면한 세상이 이렇 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목회하고 싶어했던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6페이지에 있는 당신 목록의 2번째입니다. 좋아요. 우선, 그들은 풍요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대중에 들어왔고, 여기서는 미국 기독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대중 생활에 풍요의 시대가 왔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물질적 수요와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시대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왔고, 복음주의자들은 그 세상에 어떻게 말할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물론 도시화였고, 우리는 이미 도시화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농경 문화에서 도시 문화로 옮겨가는 것, 특히 도시 문화가 문화 충돌로 인해 직면한 문제, 도시 문화에 악이 들어오는 것 등등. 복음주의자들, 그게 바로 복음주의자들이 직면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교외 비행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1950년대, 40년대 후반, 50년대는 교외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교외 생활이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은 도심의 문제에서 벗어나 교외로 도피하는 것이었고, 어떤 교회들은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맺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외 도피로 지금은 중산층이 생겨났습니다.

중산층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 중산층에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중산층은 지위에 대한 특정한 종류의 불안을 스스로에게 안겨줍니다. 나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현대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그래서, 중산층이 도시를 떠나면서 생겨난 특정한 불안이 있었고, 복음주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자신감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신감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로 인한 신뢰의 위기이고 , 그것은 New Orthodoxy가 이전에 직면했던 것과 같은 신뢰의 위기입니다. 신뢰의 위기는 자유주의 좌파가 파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주의 좌파를 신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주의 우파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본주의 우파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너무 많은 문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너무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 50, 60년대의 복음주의자들은 New Orthodoxy가 이전에 직면했던 것과 같은 격차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좌파에 있고 근본주의는 우파에 있습니다. 누가 광범위한 중도파에 어필할까요? 글쎄요, 그런 식으로 복음주의는 신정교회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 왜냐하면 신정교회가 조금 전에 다루었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광범위한 개신교 중도파에 어필할까요? 신정교회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복음주의가 등장해서 사실상 같은 말을 합니다. 누가 광범위한 중도파에 어필할까요? 복음주의는 우리가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제, 복음주의가 새로운 정통주의와 일치하지 않는 특정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때때로 새로운 정통주의가 사람들을 진정한, 활력 있는 개신교로 이끌기에 충분히 강력한 성경 권위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통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었지만 자유주의나 근본주의에 대한 비판만큼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의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 자유주의적이고 너무 근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신교적 삶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면, 누가 그들에게 어필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국 포스트모더니티로 끝날 것 때문에 자신감의 위기가 있습니다. 결국 포스트모더니티로 끝날 것에 대한 자신감의 위기가 있고, 그것은 일종의 권위의 상실입니다. 포스트모더니티가 만들어낸 한 가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도 있지만, 확실히 포스트모더니티는 사람들의 삶에서 권위의 상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거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포괄적인 이야기가 없다면, 권위가 개인에게 있고 개인이 텍스트를 읽는 방식과 개인이 텍스트를 이해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면, 거기에 권위가 있고 거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글쎄요, 그러므로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메가 스토리가 없다면 여전히 교회가 필요한가요? 복음주의자들은 그 자신감의 위기를 다루며, 그렇다고 말합니다. 메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 모든 연령대,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메가 스토리입니다.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문화를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물론 복음주의자에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메가메가 스토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후 모든 수행원들이 죄 없는 삶을 살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했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의 위기, 복음주의는 그 확신의 위기를 재구성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권위가 있고, 그 권위는 모든 문화, 모든 사람, 모든 시대, 모든 연령, 모든 세계를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교회가 직면한 20세기 문화적 세력이라고 부르고, 이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은 일종의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20세기 복음주의 21세기 복음주의를 형성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목록에 있는 네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언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주의를 형성한 네 사람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여기 있습니다. 목록에 있고 날짜도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를 적었나요? 적었어요.

좋아요, 우선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몇 년 전 시험에서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학생 중 한 명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이엄, 빌리 그레이엄은 1918년에 태어났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주의 형성자로서 존재감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2년 후에 100세가 될 테지만, 여전히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빌리 그레이엄을 복음주의 형성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그가 75세인 모습이 있습니다. 타임지, 다시 한 번, 어떤 의미에서 대중 신학자라고 할 수 있죠. 타임지는 겨울에 기독교인이었던 빌리 그레이엄에 대한 표지 기사를 전부 썼고, 75세의 나이에 말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문화권에서도 빌리 그레이엄을 인정했습니다. 잠깐만요. 빌리 그레이엄은 근본주의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근본주의자로 자랐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 자신의 사역에서 근본주의와 어울리지 못하는 지점에 도달했고, 그가 어울리던 사람들과 그가 어울리던 사상은 복음주의자라고 불렸고,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용어에서 꽤 일찍부터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과 기타 기관들과 함께 있었고, 복음주의 기관들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 일부는 수업 후에 칼 맥킨타이어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 칼 맥킨타이어 는 필라델피아의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의심스럽죠, 좋아요, 물어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집회나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에 가본 사람 있나요? 사실 가보셨어요.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이나? 프랭클린 그레이엄, 좋아요, 그게 다음 세대예요.

다른 사람? 빌리 그레이엄 집회,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 아니요. 당신 아버지는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에서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좋은 증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집회와 십자군은 여러분 대부분이 지나간 일이지만, 저는 이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곳에 가보았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에서 빌리 그레이엄 집회와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는 근본주의자들이 피켓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플래카드에는 물론 빌리 그레이엄은 악마의 종이 고 , 빌리 그레이엄은 사탄이고, 빌리 그레이엄은 사탄의 종이고, 빌리 그레이엄 십자군에 가지 마세요. 그는 당신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이 악마라고 말하는 피켓을 뚫고 지나가야만 빌리 그레이엄에 들어가고, 십자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은, 진정한 근본주의자들은 빌리 그레이엄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뉴욕에 갔을 때, 그는 그의 플랫폼에 몇몇 사람들을 데려왔고, 그의 플랫폼에 가톨릭 사제가 있었고, 아마도 루터교 목사가 있었고, 등등.

글쎄요, 이것이 그가 이런 종류의 타락한 자들과 섞을 근본주의자들의 길의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에게는 때때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 제 친구에게서 읽은 편지를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그 편지 중 하나는, 저는 그 더미를 가지고 있었고, 저는 여러분께 전부 말하지 않았지만, 편지 중 하나는 빌리 그레이엄에게 보낸 것이었고, 그가 사탄에게 감동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신의 축복이 있기를,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좋아요, 목록에서 두 번째 이름, 여기 날짜가 있습니다, 1905년부터 1985년까지, Harold John Ockenga . 이제, Harold John Ockenga , 당신은 그를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를 한 가지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일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는 Gordon College의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이 Harold John Ockenga를 아는 것일 겁니다 . 잠깐만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arold John Ockenga 와 관련된 몇 가지 일을 언급하겠습니다.

Harold John Ockenga는 정말 뛰어난 사람 이었고 ,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박사 학위를 받기 시작했던 시대였고, 그 이전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꽤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주의자 지도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Harold John Ockenga 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 인데,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위대한 복음주의자였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른 방향, 즉 목회적 방향, 조직적 방향 등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명성을 여기에서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 중 한 명이고 그를 보스턴으로 데려왔고, 그를 보스턴으로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빌리 그레이엄이 아마 몇 주 동안 설교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오래 지속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고 등등, 하지만 그는 빌리 그레이엄의 매우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라고 불리는 단체의 창립자 중 한 명이자 최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은 1942년에 설립된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제, 그들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은 스스로를 National Association of Fundamentalists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서 미국 근본주의와 직접적으로 단절된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직함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근본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자신을 식별하는 목사, 교회 사람, 대학 및 신학교의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것은 Harold Ockenga가 1956년에 설립된 Christianity Today의 창립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Christianity Today는 복음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즉시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복음주의 출판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Christianity Today가 1956년에 창간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매우, 매우, 매우 신학적으로 조율되었습니다. 신학과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 등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복음주의의 신학, 사고방식, 성경적 신학을 실제로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부였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에 다녔지만, 그와 연관시키고 싶은 교회는 보스턴의 Park Street Church입니다. 그는 33년 동안 보스턴의 Park Street Church에서 목사로 일했습니다.

또한, 아직은 이 이름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름 아래의 그림을 보면 그가 풀러 신학대학의 창립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풀러 신학대학은 서부 해안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주의적인 신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서부의 프린스턴이나 서부의 웨스트민스터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는 창립자 중 한 명이고 풀러 신학대학의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는 풀러와 협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파크 스트리트에 있었던 33년 동안, 그 중 10년 동안 그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풀러 신학대학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러 신학대학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간단히 말해서, 다른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는 고든 칼리지의 총장이 되었어요.

그가 Gordon College의 총장이 되었을 때, Gordon Divinity School이기도 했고 Gordon Divinity School은 Frost Hall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Frost Hall은 Gordon Divinity School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Gordon College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알고 있죠. 하지만 그가 한 일은 Gordon Divinity School과 Conwell Seminary를 합병해서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가 된 것입니다. 뭐, 여기서 1마일 반 정도 떨어진 곳인가요? 하지만 그것이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의 역사 때문에 저에게만 흥미로운 합병이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의 Temple University에 다녔고 Conwell은 Temple University의 신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Conwell의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Conwell에는 학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매우,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은 항상 조용하고 좋았고, 공부하기에 좋고 조용한 곳이었고, Temple University 캠퍼스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Temple University는 Russell Conwell이 침례교 기관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Ockenga 가 한 일은 Gordon Divinity School과 Conwell을 합병한 것이었고, 그런 다음 캠퍼스에서 이사를 갔고, 그 후 Gordon College가 되었습니다.

두 기관은 별도의 조직 기관이 되었고, Gordon College와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와 같이 법적으로 분리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꽤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날짜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1985년에 사망했고,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은 Hamilton Congregational Church에서 열렸고, Billy Graham이 그의 친구 Harold Ockenga 의 장례식을 설교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이 주변의 모든 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4월이었던 것 같지만, 1985년이었습니다.

그럼 Harold Ockenga ,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람입니다. 좋아요, 목록에서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람은 Carl FH Henry입니다. 그럼, Carl FH Henry의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칼 FH 헨리는 신학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복음주의 신학자로 알려졌고, 신학에 대한 꽤 방대한 저술을 썼고, 그것이 그가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또한 훈련을 받았고, 칼 FH 헨리도 저널리스트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자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널리스트의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투데이가 1956년에 창간되었을 때, 당연히 칼 FH 헨리는 크리스천 투데이의 첫 번째 편집자가 될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켰고, 그 후 풀러 신학 대학 교수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칼 FH 헨리는 이 모든 일에서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 강의 계획서의 네 번째 이름, 그리고 목록에 있는 네 번째 이름은 에드워드 J. 카넬입니다. 이제 카넬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arnell에 대한 훌륭한 전기가 있는데, 실제로 Barrington College에서 영문학 교수를 지낸 사람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연결고리입니다. Carnell은 Full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친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Fuller Theological Seminary는 가장 똑똑하고 최고의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급여를 주었고, 또한 그들이 글을 쓸 수 있도록, 책을 쓸 수 있도록, 컨퍼런스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교육 부담을 줄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주의가 강력한 영적이면서도 지적인 운동이라는 평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에드워드 카넬.

이제, 짧은 기간 동안, 에드워드 카넬은 풀러에서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풀러 신학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1967년에 시기상조로 사망했습니다. 1967년에 매우, 매우 불행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는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고, 호텔 방에서 사망했습니다.불행히도 컨퍼런스에 혼자 있었습니다.그는 전도주의에 있어서 진정한 비극이었습니다.왜냐하면 그는 전도주의의 떠오르는, 정말 뛰어난 신학자였기 때문입니다.그의 책, 힐데브란트 박사와 저는 둘 다 그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하지만 정통교회란 무엇인가?그는 정통 교회란 무엇 인가?로 가장 잘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어떤 의미에서 그 책을 옹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제, 우리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그레이엄, 오텐가 , 헨리, 카넬입니다.

B 번호에서 우리는 이미 1942년의 전국 복음주의 협회를 언급했습니다. 1956년의 기독교 오늘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D로 내려가 봅시다. 복음주의자들에 의해, 복음주의자들을 위해 설립된 대학과 신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내려가 봅시다. 그럼, 그 중 세 개를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든 칼리지가 있습니다. 물론, 1889년에 보스턴 선교사 훈련 학교로 설립되었고, 우리는 벨기에령 콩고로 가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충분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배링턴 칼리지는 19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모르셨다면 지금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배링턴 칼리지는 프로비던스 성경 연구소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이걸 본 적이 없다면 지금이 확실히 알아야 할 때입니다.

Providence Bible Institute는 19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기죠. 그런 다음, 우리는 1947년에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교이자 선도적인 복음주의 신학교가 된 Fuller Theological Seminary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창립, 그 세 가지의 창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초 휴식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건, 알아차리셨기를 바랍니다. 물론, 항상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캐런을 만났을 때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이건 아무 것과도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예배당이 있는 곳은 병동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라이브인 병동이 있었어요.

사실, 라이브인 병원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그녀를 만났을 당시에는 제 아내가 아니었지만, 그녀는 고든 칼리지의 라이브인 간호사였습니다. 학생들은 몸이 좋지 않을 때 실제로 병원에 하룻밤을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곳, 여기 아래, 지금은 모두 평평해졌지만, 바로 여기, 오늘날 예배당이 있는 곳에 테니스장과 농구장이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캐런은 라이브인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에서 데이트를 할 때, 그녀는 문에 메모를 남겨야 했어요. 알다시피, 우리는 헬스장에 있었는데, 당시 헬스장은 지금 배링턴 센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헬스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헬스장에 있거나 Lane에 있는데, Lane은 우리가 극장을 갖기 전에 연극을 하던 곳이거든요.

우리는 Lane에서 연극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메모를 남기고, 그 중 한 명, 거기에 있던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 여기 있던 정규 경찰이 캠퍼스에 비상 사태가 생기면 와서 그녀를 데려갈 수 있었어요. 바로 여기 있어요.

배링턴 대학의 이 사진은 배링턴 대학의 패런 홀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창문이고, 이 창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사무실이었고 바로 저기에 있었고, 이것은 바로 마브 윌슨의 사무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브는 윌리엄 빌러라는 사람과 사무실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칼 바르트 밑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마지막 미국인 학생이었고, 1981년에 고든에 왔습니다.

마브는 1971년에 왔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저보다 먼저 왔습니다. 저는 테리 풀럼과 사무실을 공유했는데,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성공회 사제였고 수업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사무실로 통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우리 넷이 멋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그게 배링턴입니다. 이제, 제가 카터가 한 좋은 질문을 하러 갔는데 , 이건 배링턴의 아주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건 저택이었는데, 여기 있는 우리 저택과 비슷했지만,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탑이 있었고, 등등.

그래서, 배링턴의 매우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하지만 카터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1970년에 배링턴에 갔을 때, 마브 윌슨이 저를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전히 배링턴이 고든을 인수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60년대 초반에 배링턴이 너무 강해서 고든 칼리지를 인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든은 훨씬 약한 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1970년에 그곳에 갔을 때, 여전히 잔여적인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85년에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는, 그런데, 배링턴과 고든 사이에 농구, 축구, 그런 모든 면에서 매우 흥미롭고 좋은 경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고든 캠퍼스에서 데이트를 했고, 저는 배링턴에서 가르쳤을 때를 기억합니다. 공통의 친구들이 우리를 소개했지만, 우리는 항상 윌슨 부인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제3자에게 우리의 이름을 실제로 언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에게 공을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43년이 되어서, 마브 윌슨이 우리 둘을 제 아빠와 결혼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죠. 제가 뭘 하는 거지? 여기서 뭔가를 연결하고 있는 거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잊어버려.

하지만 어쨌든, 저는 왔어요. 저는 배링턴에서 차를 몰고 왔고, 당시 저는 캐런과 사귀고 있었어요. 우리는 농구 경기를 보러 갔어요, 배링턴-고든 농구 경기였어요. 저는 캐런과 함께 앉았고, 우리는 고든 옆에 앉았어요.

글쎄, 배링턴 사람들에게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하프타임 직전에, 배링턴 군중 전체가, 너, 너, 너, 여기, 여기, 여기라고만 들렸어. 그래서, 오, 맞아, 알았어.

글쎄요, 이 일의 후반부에는, 캐런과 저는 배링턴 쪽으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에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에서 동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만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캠퍼스였죠.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Farrin Hall의 매우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우리는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서 동쪽으로 7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체, 네, 우리 전체 캠퍼스. 그런 다음, 캠퍼스는 합병 당시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일종의 배링턴 합병 이야기입니다.

5명의 교수가 합병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합병으로 130명의 학생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지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중 Farrin Hall에 있는 사람이 있나요? Farrin Hall에 들어갈 때 명판을 읽어본 적이 있나요? Barrington College의 40년 총장인 Howard Farrin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우리는 130명의 학생을 수용할 기숙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든은 이 사람들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발표되었을 때, 그들은 130명의 학생을 수용할 기숙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건설 현장 위에 거대한 흰색 거품을 얹어서 노동자들이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겨울 내내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건물은 올라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130명의 학생을 모았습니다. 5명의 교수진과 일부 직원들이 합병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든과 거의 같은 수의 동문을 데려왔습니다. 그 당시 고든은 약 6,000명의 동문을 가졌습니다. 배링턴은 약 6,000명의 동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알다시피, 동문들을 데려왔죠, 물론, 하지만 기록과 그런 면에서 말입니다. 네, 알렉산더. 이건 성경 연구소, 시온 성경 연구소에 팔렸고, 우리는 그것이 기독교 기관에 팔렸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사실, 그들은 매사추세츠 어딘가에 캠퍼스가 있고, 그렇죠, 몇몇은 맞죠, 그리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와 가깝지만, 그들은 이사를 했고, 불행히도 캠퍼스는 아직 재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 캠퍼스의 매수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습니다.

저는 1970년에 저를 고용한 윌슨 박사와 함께 했고, 1981년에 여기로 온 빌러 박사와 함께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링턴에서 온 우리 모두에게 고든으로 올라올 때 배링턴에서 근무한 모든 해를 인정해 준 것이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배링턴-고든 이야기입니다.

다른 질문이 있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배링턴-고든 이야기에 대해 제가 정말 빨리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문이 있나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링턴, 배링턴이 고든을 흡수하고 싶어할 이야기가 있어요. 고든은 교육 분야의 리더였거든요. 60년대 초반쯤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고든에 도착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 가지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꽤 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 한 장의 사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뀐 것입니다. Harold Ockenga 가 와서 Gordon의 사장이 되었을 때, 그는 Mr. Evangelical입니다. 그는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Christianity Today, Fuller Seminary, Park Street Church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전국의 복음주의 커뮤니티가 지도자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매력은 더 이상 배링턴에 가야 할까, 고든에 가야 할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고, 매력은 정말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1984년쯤에 고든의 학생 수는 400명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그 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의 섭리, 신의 뜻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받아들이죠. 좋아요.

여기 다른 이름 몇 개 더 있어요. 어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17페이지에 있어요.

17, 바로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리더십.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일은 그들이 학계에서 엄청난 리더십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걸 하고, 수요일에는 복음주의의 교리를 하고, 복음주의의 약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꽤 주목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생각나는 사람들 중 몇 명을 언급하겠습니다. 우선, 조지 마스든입니다.

조지 마스든은 매우 유능하고, 매우 잘 알려진, 정말 뛰어난 역사가이며 근본주의와 복음주의 역사가입니다. 그는 칼빈 대학에서 수년간 가르쳤지만, 그 후 노트르담으로 가서 노트르담에서 가르쳤습니다. 현재 노트르담은 로마 가톨릭 학교입니다.

당신은 노트르담이 이 복음주의자들을 초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그들은 조지 마스덴의 장학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은퇴했기 때문에 오늘은 노트르담에 없습니다.   
  
또한 알리스테어 맥그래스도 언급하겠습니다. 알리스테어 맥그래스는 꽤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알리스테어 맥그래스의 자료를 읽었지만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 자기 정체성이며 그는 성공회 사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지 마스덴과는 다른 전통에서 왔습니다. 성공회 사제이지만 꽤 주목할 만한 사람이고 정말 뛰어난 학자입니다.

당시 예일에서 가르치고 있던 니콜라스 월터스도프를 알고 있을 겁니다 . 그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지금 은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일에는 없지만, 철학계에서는 니콜라스 발터스도르프와 그가 만들어낸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주의자입니다. 그는 일종의 자기 헌신적이고, 자기 확신적인 복음주의자인데, 흥미로운 일입니다. 물론, 마크 놀이라는 이름은 익숙할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했을 당시, Mark Noll은 Wheaton College에 있었지만, Mark Noll이 지금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그는 Notre Dame에 있습니다. Notre Dame. 또 다른 훌륭하고 뛰어난 신학자이며, 그런데 Marsden처럼 주로 미국 신학, 미국 교회 역사와 근본주의, 그리고 복음주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자이고, 노트르담에 있지만, 그는 훌륭한 개신교도이자 스스로를 복음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노트르담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르담은 오늘날 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Marcia McGrath, Waltersdorf, Mark Noll은 모두 이 캠퍼스에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여러 번 연설했습니다. 그러니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이 사람들의 연설을 들을 기회가 있다면 꼭 들어보세요. 목록에 없는 한 명을 더 언급하겠습니다. 그는 Gordon College 졸업생이고, 우리는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말은, 젊은 학자들을 많이 언급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 스미스입니다. 크리스찬 스미스는, 여러분 중에 사회학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크리스찬 스미스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 스미스는 복음주의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는 고든 대학 졸업생입니다. 그는 여기 고든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가 되었고, 노터담에 갔습니다.

이제, 크리스찬 스미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순례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스미스는 로마 가톨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혔지만 로마 가톨릭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든 칼리지 졸업생입니다. 우리는 이 목록에 복음주의자이거나 복음주의에서 자라서 그 배경을 활용하여 사회학, 철학, 역사 등의 세계에 기여하는 학계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들은 가장 뛰어난 사람을 생각해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Roberta Hestonese 일 겁니다 . 2주 전 교수 포럼에서 Provost Curry의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중에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고등교육 분야의 여성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고등교육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고등교육 분야의 여성들이 그 연구에 참여했어요.

로버타 헤스토네즈는 웨슬리안 전통에서 온 것이 아니지만, 커리 교장이 언급한 것은 오늘날 기독교 대학 연합 학교를 살펴보면, 그 기독교 대학 연합 학교에는 여성들이 대통령 리더십을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웨슬리안 전통에서 온 사람들이고,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로버타 헤스토네즈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웨슬리안 전통에서 왔습니다.

제가 여성에 대해 바로 생각할 때, 저는 교회에서 리더십 직책을 맡고 있는 여성이나 대학 총장을 떠올립니다. 오늘날 캔자스 시티의 나사렛 신학교 총장은 약 2년 전에 선출된 여성입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수요일에 강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미국 기독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이것은 복음주의에 대한 세션 27입니다.